

3, 4, 5세 유아의 특질 유형과 정서가에 따른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

3, 4, 5 Year-old Children's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Trait Type and Valence

이정현* · 이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Lee, Jeong Hyeon* · Yi, Soon H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trait type and valence. Participants included 120 children (40 three-year-olds, 40 four-year-olds, and 40 five-year olds) recruited from 3 day-care-centers and 1 kindergarten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Results revealed that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raits differed based on trait type and valence. Children demonstrated a strong belief that social-intention traits are more stable and harder to change when compared to internal-state traits. Young children's beliefs on trait stability were also strongly influenced by trait valence. They believed that negative traits are more likely to change for the better while positive traits have greater stability and are less likely to change over time.

Keywords: trait stability, trait type, trait valence

I. 서 론

특질(trait)이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성향(Allport, 1937)을 말한다. 특질은 안정적인 내적 특성으로서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Yuill, 1993), 성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을 특질에 의해 설명하거나, 특질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한다(Heider, 1958). 즉, 사람들은 타인을 시간적, 상황적으로 안정적인 특질에 따라 범주화하는데 (Markus & Kitayama, 1991), 특질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손쉬운 예측과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특질은 다른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도 특질을 인식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타인 및 자아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Lockhart *et al.*, 2008). 특질 이해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 하나는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다. 개인이 갖는 믿음 체계는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따른 반응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 역시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를 불러온다(Dweck *et al.*, 1993). 특히,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Lee, Jeong Hyeon

Tel: 02-880-8754

Email: jeonghlee@nate.com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특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과연 특질을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표면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심리적 본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다. 심리적 본질주의는 모든 실체가 내면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은 실체를 구성하는 인과적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Gelman, 2003)는 것이다. 즉, 내면의 근본적 본질이 그 실체의 속성들과 행동들을 제약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관찰 가능한 속성 및 행동을 생성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관찰 가능한 속성 및 행동은 내면의 본질을 드러낸다(Medin, 1989). 또한 본질주의적 관점에서는 특질을 자연적 혹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특질의 변화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Gelman, 2003). 4세 유아도 외양 유사성을 넘어 같은 범주 명칭에 속한 대상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고 믿으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Gelman & Markman, 1986; Gelman & Wellman, 1991). 따라서 어떤 특질을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그 특질은 이를 소유하는 개체의 근본적인 양상으로서, 변화하기 힘든 요소로 생각한다(Martin & Parker, 1995).

비록 특질이 실질적으로 발달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기는 하지만(Srivastava *et al.*, 2003), 일반적으로 특질은 시간적 안정성, 상황적 일관성, 그리고 행동의 인과적 요인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특질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크게 실체적 관점(entity view)과 증진적 관점(incremental view)으로 나뉜다(Dweck & Leggett, 1988). 특질을 실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심리적 본질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질을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실체적 관점에서는 특질의 변화를 바라더라도 특질은 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증진적 관점에서는 특질이 개인의 바람이나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의 특질을 안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행동, 그리고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질 안정성에 대해 실체적 관점을 지닌 사람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부정적 자기 귀인의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Dweck & Leggett, 1988, Heyman & Dweck, 1998). 또한 특질에 대한 실체적 관점은 고정관념, 무력감, 행동의 과잉일반화와 연결된다(Levy & Dweck, 1999). 이처럼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동기나 사회적 행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아동은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적인 특질도 긍정적인 특질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낙관적 믿음은 현실적으로 변한다. 특히, 5-6세 유아들은 7-10세 아동이나 성인들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특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통제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특질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믿었다(Lockhart *et al.*, 2002). Lockhart와 그 동료들은 이와 같은 아동의 믿음을 '보호적 낙관주의(protective optimism)'로 설명한다. 낙관적 믿음은 실패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동이 낙관적 믿음을 갖는 것은 적응적이라고 본다.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노력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낙관적 믿음 보다는 실체적 관점에서 특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적응적일 수 있다(Heyman & Dweck, 1998). 특질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서 현실적 믿음으로의 발달적 변화, 증진적 이론에서 실체 이론으로의 발달적 변화는 개인의 적응과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낙관성은 어린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낙관성은 실패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유지하는 '긍정 편향(positive bias)'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편향은 초등학교 시기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lumert, 1995). 어린 아동의 낙관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동이 목표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Snyder *et al.*, 1997)와, 아동기의 낙관성은 미숙한 인지 처리 능력에 의한 것(Lyon & Flavell, 1993)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동시에 아동이 특질에 대해 변화 가능한, 낙관적 편향의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 또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주의적 관점 혹은 실체적 관점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에 대한 주장은 나뉘어져 있다. 한쪽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Gelman, 2003)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연령이 높은 아동이 유아들에 비해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한다(Lockhart *et al.*, 2002). 특히, 공격성의 경우 학령전기에는 공격적인 특질을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결과에 대해 유아들은 공격성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회적 경험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이 행동을 일으킨다고 믿는 내부원리(innards principle)에 의해 공격성이라는 특질을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Giles & Heyman, 2004). 이렇듯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도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연령별로 다양한 유형의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 외에 문화에 따라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에도 차이를 보인다. 서양, 즉 개인주의적 문화권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또는 실체적 관점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Lockhart *et al.*, 2008). 이에 비해 아시아권 문화 사람들은 증진적 관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성인들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특질을 더 유연하고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정적 특질의 변화를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Lockhart *et al.*, 2008).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아동의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i & Song, 2008), 타인의 행동 귀인 시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특질보다는 상황에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Norenzayan *et al.*, 2002).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유아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주집단 내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인과적 기제를 찾기 위한 연구에서 유아도 표면적인 특질을 고정되어 있는, 근본적인 본질로 귀인하려는 편향을 보인다(Gelman, 2003). 이는 위에서 언급한 Lockhart(2002)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들에 비해 연령이 높은 아동이 본질주의적 추론으로 특질을 이해하는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본질주의적 관점은 특정 영역에서 더 확실히 나타나는데, 인공물(artifacts) 범주보다는 자연물 범주에 있어서 본질주의적 판단을 하고(Gelman, 2003), 인물에 대한 추론에서도 심리적 특질과 행동적 특질 사이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Heyman & Gelman, 1998). 또한

아동도 사회적 범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을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 인종 같은 자연적인 사회적 범주를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한다(Hirschfeld, 1995). 뿐만 아니라 학령전기 유아도 타인의 행동적, 생물학적 특징들을 성별 정보를 통해 추론한다(Gelman *et al.*, 1986). 이렇듯 아동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범주의 특성들에 대해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속한 개인의 특질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질을 포함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질의 유형은 크게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상태 특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Yuill, 1992). 사회 의도적 특질은 ‘관대함’, ‘친절함’과 같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s)로서 주로 타인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며 도덕적 가치관을 내포한다. 이에 반해 내적 상태 특질은 ‘용감함’, ‘부정적인’처럼 대상의 내적인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내적 상태 특질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도덕적 가치와는 다르다. ‘두려움, 겁이 많은’과 같은 내적 상태가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감하다는 것을 긍정적 특질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용감하지 못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유형의 특질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사회 의도적 특질의 경우 일반적인 평가 단서를 통해 행동 예측이 가능하지만, 내적 상태 특질은 마음이론에서 말하는 믿음과 바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한다(Yuill, 1992). 일반적으로 아동은 사회 의도적 특질을 내적 상태 특질보다 더 잘 인식하고 더 정확히 기술한다(Yuill, 1992). 특질 어휘 사용에서도 연령 차이를 보여, 일반적으로 사회 의도적 특질 어휘를 내적 상태 특질 어휘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이 사용한다(Ridgeway *et al.*, 1985). 특질의 유형 뿐 아니라 특질의 긍정성 및 부정성을 의미하는 정서가(valence)에 따라서도 특질 이해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가의 특질을 부정적 정서가 특질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Heyman & Giles, 2004; Koo, Ghim, Kim, Yang, Ko & Chung, 2006; Lockhart, *et al.*, 2002). 그러나 이러한 특질 정서가에 따른 안정성 믿음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Lockhart *et al.*, 2002)는 연구 결과와 그 차이가 크지 않거나 7세 이전에는 차이가 없다(Heyman & Giles, 2004; Koo *et al.*, 2006)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질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

가 만 3, 4, 5세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특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Wellman(1990)은 특질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바람, 생각, 의도, 정서와 같은 마음상태를 포함하며, 그 특질들이 다양한 행동과 마음상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특질은 이렇게 다양한 마음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6세 이후가 되어야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학령기 아동에 비해 유아기의 특질 이해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학령기 이전의 유아도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Dozier, 1991; Heyman & Gelman, 1999; Koo et al., 2006); Yun & Song, 2007). 그리고 4세경 타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특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Flavell et al., 2002)하며, 특질 지칭어를 사용하기 시작(Bretherton & Beehly, 1982)한다는 사실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질 관련 단서들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 예측 능력도 보인다(Dozier, 1991; Koo et al., 2006)는 점에 근거하여 학령기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만 4세, 및 만 5세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이 특질 유형, 특질 정서가 및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어떠한 경향

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 유형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 정서가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와 4세, 그리고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4, 5세 정도에 유아가 타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특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Flavell et al., 2003)하며, 특질 용어를 사용하는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Bretherton & Beehly, 1982)이며, 특질 관련 단서들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 예측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Dozier, 1991; Koo et al., 2006)는 점에서, 비록 연령이 높은 아동들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시기의 유아들도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 1곳에 다니는 3세 유아 40명, 4세 유아 40명, 5세 유아 40명, 총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남녀 성별은 동수로 구성하였다. 각 연령의 평균 월령은 만 3세가 43.2개월, 만 4세가 54.5개월, 만 5세가 65.4개월이었다 <Table 1>.

<Table 1> Participants

Age (mean age in months)	Male	Female	Total
	N		
3years (43.2)	20	20	40
4years (54.5)	20	20	40
5years (65.4)	20	20	40
Total	60	60	12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Heyman & Gelman, 1999; Koo *et al.*, 2006; Lockhart *et al.*, 2002, 2008)에서 사용된 과제들을 참고로 4개의 특질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4개의 특질은 ‘착한/못된/용감한/겁 많은’으로 이는 특질 유형에 따라 사회 의도적 특질(착한, 못한)과 내적 상태 특질(용감한, 겁 많은)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특질 정서가에 따라 긍정적 특질(착한, 용감한)과 부정적 특질(못된, 겁 많은)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3개의 행동정보로 이루어지고, 각 시나리오마다 등장 인물들을 달리하고 대상 인물이 특질과 연관성 있는 행동을 1회 내지는 3회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질별로 6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사용되었고 특질과 연관된 행동정보는 서로 다른 행동들이지만 이를 통해 동일한 특질 추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사회 의도적 특질 및 긍정적 특질에 속하는 ‘착한’ 특질은 나눠주기, 빌려주기, 도와주기의 행동 정보로, 사회 의도적 특질 및 부정적 특질에 속하는 ‘못된’ 특질은 빼앗기, 밀치기, 무너뜨리기(방해)의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내적 상태 특질 및 긍정적 특질에 해당하는 ‘용감한’ 특질은 사나운 개, 천둥 번개, 그리고 주사라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앞으로 지나가기,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행동 정보로 구성하였다. 내적 상태 특질 및 부정적 특질에 해당하는 ‘겁 많은’ 특질은 사나운 개, 천둥 번개, 그리고 주사라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앞으로 도망가기, 숨기, 울기 등의 행동정보로 구성하였다. 이 때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연구대상 유아와 동성으로 제시되었다.

3. 연구 절차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분리된 공간에서 일대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유아들은 이틀에 걸쳐 하루에 24개의 시나리오 중 무작위로 12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과제를 먼저 수행하고 둘째 날 나머지를 수행하였다. 연구자와 유아가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유아에게 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들려주고, 각 시나리오별로 3개의 그림 카드를 제시했다. 각각의 카드를 제시할 때 그 그림의 상황, 즉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예: “○○는 장난감이 없는 △△에게 자기 장난감을 빌려준다.”). 설명이 끝난 그림카

드는 유아 앞에 두어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세 개의 그림 카드가 유아 앞에 놓여 있게 된다. 그 상태에서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유아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질문은 행위자가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바람에 따라 자신의 특질 혹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 어른이 되었어. 그런데 ○○는 항상 △△(그림 카드에서 제시된 특질 일관 행동-나눠주고, 빌려주고 도와주기만 하는)게 싫었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한(착한) 사람이니까 항상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싫었대. ○○는 자기가 □□한(못된) 사람이 되면 더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못된) 사람이 되고 싶었대. 그러면 ○○는 어떤 어른이 되어있을까? 계속해서 △△한(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한(못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유아에게 하였다. 각 특질마다 행위자가 변하고자하는 바람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특질 자체에 대한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응답이 아닌 행위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는 경우를 배제(Heyman & Giles, 2004)하기 위함이다. 착한 특질로의 변화를 원하는 이유로는 칭찬을 많이 받을 것, 용감한 특질로의 변화는 더 멋지게 보일 것, 겁 많은 특질로의 변화는 보호(돌봄)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유아의 응답에 따라 특질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답은 0점, 변화하였다는 답은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각 특질별로 받을 수 있는 점수범위는 0점에서 6점이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특질 유형과 유아의 연령, 그리고 특질 정서가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특질 유형 및 특질 정서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해석할 수 있다.

1.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전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착한, 못된, 용감한, 겁 많은)에 대한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과제 수행 점수(범위: 0-6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점수는 0에 가까울수록 특질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강함을 의미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4개의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의 평균점수를 보면 만 3세(M= 10.00, SD=1.66), 만 4세(M=9.86, SD=1.58), 만 5세(M=8.78, SD=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인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만 3세에 비해 만 4, 5세 유아들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질이 변하기 힘든 안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2. 특질 유형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

특질 유형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특질 안정성 믿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질 유형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고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특질 유형에 따른 차이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질 유형의 주효과($F=27.06$, $df=1, 117$, $p<.001$)가 나타남에 따라서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특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3세는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상태 특질의 안정성 믿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95$,

<Table 2> Mean Stability Scores by Age and Trait

Age (years)	Traits M(SD)				Total M(SD)
	Nice M(SD)	Mean M(SD)	Brave M(SD)	Timid M(SD)	
3	0.28(0.60)	4.08(1.33)	0.88(1.09)	4.78(1.05)	10.00(1.66)
4	0.28(0.64)	4.05(1.43)	0.83(0.87)	4.70(1.16)	9.86(1.58)
5	0.15(0.48)	4.00(1.36)	0.58(0.71)	4.05(1.15)	8.78(1.98)

<Table 3> Repeated-Measures ANOVA on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Trait Type and Age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Trait Stability	Between Groups	Age	17.10	2	8.55	5.44**
		Std. Error	183.75	117	1.57	
	Within Groups	Trait Type	60	1	60	27.06***
		Trait Type X Age	7.60	2	3.80	1.71
		Std. Error	259.40	117	2.22	

** $p<.01$, *** $p<.001$

$p<.001$). 4세 역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3.49, p<.01$). 즉, 3세와 4세 유아들은 ‘착한, 못된’과 같은 사회 의도적 특질들은 ‘용감한, 겁 많은’ 같은 내적 상태 특질에 비해 더 변하기 어려운 특질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5세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의 주효과($F=5.44, df=2, 117, p<.01$)도 나타났는데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3세와 4세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세와 5세, 4세와 5세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질 유형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 특질 정서가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

특질 정서가와 유아의 연령에 따라 특질 안정성 믿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질 정서가를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고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특질 정서가의 주효과와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특질 정서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F=1580.52, df=1, 117, p<.01$)는 유아들이 ‘못된, 겁 많은’ 같은 부정적 정서가 특질에 비해 ‘착한, 용감한’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특질들에 대한 안정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특질을 가변적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부정적 특질에 대해서 강한 낙관적인 믿음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Choi & Kwak, 2007; Lockhart et al.,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질 정서가에 따른 특질 안정성 믿음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3세에서 긍정적 특질과 부정적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2, p<.001$). 만 4세도 같은 양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t=-22.45, p<.001$). 그리고 만 5세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92, p<.001$).

연령의 주효과($F=5.44, df=2, 117, p<.01$)를 사후 검증한 결과 3세와 4세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3세와 5세는 $0.6(p<.05)$, 4세와 5세는 $0.53(p<.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t-Test on Mean Trait Stability Scores by Trait Type

Age(years)	Trait Type	N	M	SD	t
3	Social-Intention	40	4.35	1.29	-3.95***
	Internal-State		5.65	1.36	
4	Social-Intention	40	4.32	1.42	-3.49**
	Internal-State		5.52	1.26	
5	Social-Intention	40	4.15	1.40	-1.44
	Internal-State		4.65	1.49	

** $p<.01$, *** $p<.001$

<Table 5> Repeated-Measures ANOVA on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Valence and Age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Trait Stability	Between Groups	Age	17.10	2	8.55	5.44**
		Std. Error	183.75	117	1.57	
	Within Groups	Valence	3435.27	1	3435.27	1580.52**
		Valence X Age	1.43	2	0.72	0.33
		Std. Error	254.30	117	2.17	

** $p<.01$

〈Table 6〉 t-Test on Mean Trait Stability Scores by Trait Valence

Age(years)	Trait Valence	N	M	SD	t
3	Positive	40	1.15	1.25	-21.92***
	Negative		8.85	1.51	
4	Positive	40	1.10	1.05	-22.45***
	Negative		8.75	1.56	
5	Positive	40	0.72	0.93	-24.92***
	Negative		8.05	1.67	

*** $p < .001$

유아들의 안정성 믿음은 특질 정서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유아들도 긍정적 특질에 대해서는 안정성 믿음이 강하게 나타났고 부정적 특질에 대해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가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실패 상황이나 좌절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적 적응과 성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Dweck & Leggett, 1998)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특질의 유형과 정서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만 3세, 만 4세, 그리고 만 5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질이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아동이 유아들에 비해 특질을 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주장(Lockhart et al., 2002)과 일치한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주장(Giles, & Heyman, 2004)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공격성이라는 특정한 특질에 대한 결과이므로 이를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낙관적 믿음 보다는, 특질을 변하기 어려운 안

정적인 성향이라고 보는 실체적 관점에서 특질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노력이나 포기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Heyman & Dweck, 1998)이라는 주장에 비춰보면, 5세 유아도 3세에 비해 특질에 대한 실체적 관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5세 이후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세 유아가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과 같은 실체적 관점을 가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만 3세 유아에 비해 만 5세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대상으로 한 만 5세보다 더 어린 연령부터 특질 안정성에 대한 변화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특질 유형에 따른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특질에서의 차이를 보이는데, 유아들은 ‘착한, 못된’과 같은 사회 의도적 특질들이 ‘용감한, 겁 많은’ 같은 내적 상태 특질에 비해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3세와 4세 유아들이 사회 의도적 특질을 더 변하기 어려운 특질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5세 유아들은 특질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의도적 특질이 가치판단 요소들을 포함하고, 아주 이른 연령부터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특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적 상태 특질보다 유아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특질이라는 관점에서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훈육에 의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들의 “엄마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어린이는 커서도 나쁜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도 계속 나쁜 사람이 돼요!”라는 응답에서 유아들을 훈육할 때 사용한 설명이 ‘못된’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의도적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을 강화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5세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5세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의 훈육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아들이 특질 유형별 안정성에 대한 차이가 없음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의 정서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긍정적 특질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특질은 시간이 지나고 개인의 바뀌고자하는 바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즉, 부정적 특질의 경우 그 변화가 자신들의 통제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성인에 비해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하게 되는 아동에게 실패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적응적 믿음이라고 본다(Heyman & Dweck, 1998). 이 연구에서도 네 가지 특질 중 긍정적 정서가에 속하는 ‘착한’과 ‘용감한’ 특질에 대한 점수가 부정적 정서가에 속하는 ‘못된’과 ‘겁 많은’의 특질에 비해 전 연령대에 걸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어린 유아들도 특질의 정서가, 즉 특질의 긍정성 및 부정성 여부에 따라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는 ‘보호적 낙관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 아동은 부정적인 특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통제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반면 긍정적인 특질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믿는다(Lockhart, et al., 200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만 3, 4, 5세 유아들에게서도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특질에 대해 더 큰 안정성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특질을 부여할 때 더 많은 행동의 확증(behavioral confirmation)을 필요로 한다(Rothbart & Park, 1986; Tausch et al., 2007)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아들도 긍정적 특질에 더 큰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부정적 특질에 비해 긍정적 특질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힘들어 획득한

특질은 더 오래 유지된다고 예상한다(Kenworthy & Tausch, 2008)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질 정서가에 따른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의 차이가 보호적 낙관주의에 의한 것인지 특질 획득의 노력 정도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질 안정성 믿음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내적 상태 특질 보다 사회 의도적 특질에 대해 더 강한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특질 정서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들은 긍정적 특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정적 특질에 대해서는 변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기나 아동기 이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의 양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영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연령대까지를 포함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특질 안정성 믿음의 발달 양상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특질 안정성 믿음의 양상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분명히 특질 안정성 믿음의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특히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의 개별적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만 5세 이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연구대상을 만 3세, 4세, 5세의 어린 유아로 낮춰 생애 초기 특질 안정성 믿음의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유형의 특질 혹은 한 가지 정서가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유아의 특질이해 수준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Koo et al., 2006)에 비추어 두 가지 특질 유형과 특질 정서가를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특질 안정성, 특질 유형, 특질 정서가

REFERENCES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 Bretherton, I., & Beeg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906-921.
- Choi, S. Y. & Kwak, K. J. (2007).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in young childre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59-80.
- Choi, Y. J., & Song, H. J. (2008). Korean adults' beliefs about the essence of children's trai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2), 403-423.
- Dozier, M. (1991). Functional measurement assessment of young children's ability to predict future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5), 1091-1099.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Dweck, C. S., Hong, Y., & Chiu, C. (1993).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5), 644-656.
-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 (2002). *Cognitive development*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Gelman, S. A. (2003). *The essential child: Origins of essentialism in everyday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lman, S. A., Coleman, P., & Maccoby, E. E. (1986). Inferring properties from categories versus inferring categories from properties: The case of gender. *Child Development*, 57(2), 396-404.
- Gelman, S. A., & Markman, E. M. (1986). Categories and induc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23(3), 183-209.
- Gelman, S. A., & Wellman, H. M. (1991). Insides and essences: Early understandings of the non-obvious. *Cognition*, 38(3), 213-244.
- Giles, J. W. & Heyman, G. D. (2004). Conceptions of aggression and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3(5), 407 - 421.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Sons.
- Heyman, G. D., & Dweck, C. S. (1998). Children's thinking about traits: Implications for judgments of the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69(2), 391-403.
- Heyman, G. D. & Gelman, S. A. (1998). Young children use motive information to make trait in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310-321.
- Heyman, G. D. & Gelman, S. A. (1999). The use of trait labels in making psychological inferences. *Child Development*, 70(3), 604-619.
- Heyman, G. D. & Giles, J. W. (2004). Valence Effects in Reasoning About Evaluative Traits. *Merrill-Palmer Quarterly*, 50(1), 86-109.
- Hirschfeld, L. A. (1995). Do children have a theory of race? *Cognition*, 54(2), 209-252.
- Kenworthy, J. B., & Tausch, N. (2008). Expectations about the accuracy and stability of warmth versus competence traits: An intergroup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7), 1121-1129.
- Koo, J., Ghim, H. R., Kim, K., Yang, H. Y., Ko, S., & Chung, M. S. (2006). Children's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traits: with focus on trait inference and situational and temporal st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1-20.
- Levy, S. R., & Dweck, C. S. (1999). The impact of children's static versus dynamic conceptions of people on stereotype formation. *Child Development*, 70(5), 1163-1180.
- Lockhart, K. L., Chang, B., & Story, T. (2002).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he stability of traits: Protective optimism? *Child Development*, 73(5), 1408-1430.

- Lockhart, K. L., Nakashima, N., Inagaki, K., & Keil, F. C. (2008). From ugly duckling to swan? Japanese and American beliefs about the stability and origins of traits. *Cognitive development, 23*(1), 155-179.
- Lyon, T. D., & Flavell, J. H. (1993).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forgetting over time. *Child Development, 64*(3), 789-80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tin, C. L., & Parker, S. (1995). Folk theories about sex and race dif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1), 45-57.
- Medin, D. L. (1989). Concepts and conceptual structure. *American Psychologist, 44*(12), 1469-1481.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 E. (2002).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inference: evidence from behavioral predictions and lay theories of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 109-120.
- Plumert, J. M. (1995). Relations between children's overestimation of their physical abilities and accident pron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1*(5), 866-876.
- Ridgeway, D., Waters, E., & Kuczaj, S. A. (1985). Acquisition of emotion-descriptive language: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norms for ages 18 months to 6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901-908.
- Rothbart, M., & Park, B. (1986). On the confirmability and disconfirmability of trait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1), 131-142.
-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M., Ware, M., Danovsky, M., Highberger, L., Ribinstein H., & Stahl, K. J.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3), 399-421.
- Srivastava, S., John, O. P., Gosling, S. D., & Potter, J. (2003). Development of personality in early and middle adulthood: Set like plaster or persistent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41-1053.
- Tausch, N., Kenworthy, J. B., & Hewstone, M. (2007). The confirmability and disconfirmability of trait concepts revisited: Does content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542-556.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 Yuill, N. (1992). Children's conception of personality traits. *Human Development, 35*(5), 265-279.
- Yuill, N. (1993).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and dispositions. In M. Bennett(E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The child as psychologis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Yun, J. E., & Song, H. J. (2007). The development of abilities to infer others' dispositions in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6*(2), 83-100.

접 수 일 : 2011. 12. 22.

수정완료일 : 2012. 01. 13.

게재확정일 : 2012. 01. 13.